

어린아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엇인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을 빌어서 알아보면 '어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제시(開)하고 가르쳐서(示) 제대로 알게(悟)하고 여래처럼 되게(入)' 하기 위해서이다. 멋있게 나타내면 증생을 구해해서 부처님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조금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알아주는 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남이 아닌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참처럼 쉽지 않아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그래서 2천 년 전 동굴인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새겨진 글의 내용을 알아보니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 것 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그래, 그래' 하며 마저 여러의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사두! 사두!' 하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벽화를 그린 이가 어른이라서 그렇지 만일 아이들이 그랬다면 '요즘 어른들은 도무지 이해하려들지 않아' 딱 막힌 답답한 존재라고 할지도 모른다.

교육학에서도 말하듯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른들의 가치관을 고민을 이해하거나 이어 받을 수가 없다. 학교수업 외에



불자 세상보기

법현
열린선원 원장

청소년, 어른들의 거울

도 학원에 나가 몇 시간씩 보내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컴퓨터 게임하느라 뭐 다른 것을 고민하거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를 선택할 여가를 내지 못한다.

눈이 빨개지도록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손바닥 안쪽 끝에 굳은살이 배이도록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다가 잠이 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여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흘리고 있다. 그런 청소년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거나, 자신의 몸과 마음 앞에 펼쳐지는 경계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가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답답나 슬 심지어 분노 등 환각제나 이성과의 육체적 탐닉 등에 쉽게 빠져들고 처음 만난 날부터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을 새며 노닥거리다가 자신의 본디 일인 공부나 활동에 장애가 생겨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꽤 된다는 보고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누구에게나 물어 보아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의식 없는 의원들이, 지각없는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 한다.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투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도,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도, 자녀들의 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도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고생스러워하고 있으니 내 마땅히 평화롭게 하라'는 부처님의 탄생은 문제해결의 책임과 권한이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어른 형성층에 있는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여가를 더 많이 주어서 문화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 종교단체 특히 불교계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청소년들의 재미까지도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분야의 노력에 대해 3대종교를 비교하면 불교는 제일 처진다는 평가이다. 일만 열년 2천만 불자와 1700년의 역사만을 내세워서는 아무런 영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꼭 알맞은 '눈높이 교육(觀機說法)'을 하듯 부처님의 후예인 한국불교 내의 종단과 범불교구구 및 청소년 교화단체, 불교관련학회와 연구소 등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종단 차원의 청소년 단체인 파라마이타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미래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 단체로서, 파라마이타는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출발하였고, 또 조계종 청소년 포교 분야를 대표하면서 나름대로 업적을 이루어 왔다. 지속적인 청소년 지도자 양성고 청소년 포교를 위한 기초 자료 집적, 전국 규모의 캠프를 통한 청소년 불자들의 참여 마당 확대 등은 그 대표적인 공헌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연 파라마이타가 종단 차원의 기구라는 위상에 걸맞은 내실있는 활동을 해 왔는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 정도 위상의 기구라면 누가 하더라도 그만큼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업적으로 든 캠프만 하더라도 종단의 위상을 입고 숫자상으로서는 대우모라 할 만한 전국적 행사를 치렀지만 과연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였으며, 또 치열한 모색을 통해 해마다 발전되어 왔는가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10살 파라마이타의 '미래' 열기

그것은 파라마이타의 다른 사업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타성적으로, 주어진 틀 안에서 적당히 하는 모습들이 드러난지 이미 꽤 시간이 흘렀고, 그런 세월 속에 조직의 해이 현상까지도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창립 10주년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는 뼈를 깎는 엄한 반성으로 재창립의 각오를 다지라고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파라마이타의 현실이 아닐까 싶다.

미래불자 양성에 대한 불교계의 전반적인 무관심과 종단의 부족한 지원 속에서 애를 써온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노고들이 좀 더 발전적인 지향을 지니고 통일적,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상충작용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확충시켜나가기야 한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추진력을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 그 위상과 역할로 보여 실제로 파라마이타가 아니고는 미래 불교를 열어나갈 주체가 없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창립 10주년을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미래 불교를 열어나가는 파라마이타의 쇄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본연의 임무

"하잘 것 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게 해서 안된다. 방탕과 사치를 배워 탐욕을 생기게 해서 안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익히고 배우되,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법구경>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가 한총련 탈퇴 및 '탈정치화'를 선언한데 이어 동국대, 단국대, 경희대 등의 총학생회도 한총련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하는 근본 이유는 학생회가 정치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본연의 학생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전국 대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다수가 정치투쟁 일색의 학생운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대학의 총학생회가 '정치나 사회문제(6.4%)'보다 '학생이나 학내문제(89.3%)'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본연의 임무는 당연히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관심과 욕구가 다양해진 요즘, 과거와 같은 일방적 학생회 운영은 당연히 환영받지 못한다. 학생회 역시 학생들이 공부할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려는 학생회의 노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한총련도 대다수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때다. 변화하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멀어지는 한총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실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도에 이끌리는 일이 없다.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걸어간다" <근본경전>

■김두식(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동국대 반드시 로스쿨 유치해야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동국대 100주년 기념식에서 '로스쿨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라'는 법어를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불교계 특히 종단이나 재단이 종립대인 동국대에 대한 거의 로스쿨 무관심에 큰 실망을 느낀 대다수 불교인들은 이번 법전 스님의 법문을 크게 반기고 있다. 법전 스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부터 불교계가 단결하여 동국대의 로스쿨 유치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기독교계 대학들은 이미 로스쿨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시라도 빨리 불교인 발기로 동국대 법학대학원 유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발전기금 모금 등 대대적인 불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불암산(북대뉴스)

어린이 없는 봉축행사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겹쳤던 올해 봉축행사는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었다.

불교계 신문과 서울시청 앞에 세워진 장엄물 등을 통해서 이번 봉축행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불교계가 이를 통해서 '어린이 포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다. 또 4월 30일에 열렸던 연등축제 때에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었다.

때문에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연등축제가 열리는 견지동 조계사 일대로 나들이를 나갔다. 하지만 작년과 별반 다른 행사들로만 꾸며진 연등축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피곤해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마땅히 실한 쉼터도 없었다.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주변의 사찰 여러 곳을 찾았지만 그곳의 사찰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흔히 '보살불교'라 불리는 한국 불교의 현실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어린이나 젊은층들을 위한 봉축행사 준비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갑수목 고행과 되어가는 불교, 변화의 노력을 기대한다. 김갑석(서울시 서대문구 흥재동)

■도와주세요 교도소에 노래방기기를...

일주일 전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재소자였습니다. 이제 출소해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광주교도소 불교반 식구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건반악기를 오래한 탓에 불교반에서 법회를 볼 때마다 의식곡들만

주를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출소하면서 반주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교반 식구들은 찬불가도 듣고 싶고 부르고 싶어합니다. 반주자를 구할 수 없어 풍경소리에 요청을 해 찬불가 CD와 악보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차에 현대불교신문에서 군포교를 위해 노래방기기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많이 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군포교하

는데 반주기를 기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보 때문이기는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하고 새 생활을 찾기 위해 신행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위해 포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고 공부하는 이들이 의식곡도 부르지 못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기증해주실 분은 없으신지요. 두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영춘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2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안내 5월 24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수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일 방송(2시간용 총20개)

▶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일 제공

▶ 교육 참가비 : 20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외식개발원)

▶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 | |
|----------------|---|
| 빙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
| 명리학 성명학 |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경쟁쟁이.... |
| 최면학 |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킴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강법,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치명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한국치유학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우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의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강의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연정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